광주 경찰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이 21일 경찰서 담장에 벽화를 그리고 있다.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경찰상을 담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답 못찾은 전남 시내버스 '주 52시간 근로'

여수·순천·광양·목포 노사 이견 팽팽…지노위, 쟁의조정 중지 결정

노조 "사측에 시간 줄 것"…인력 부족에 감축운행 불가피 시민 불편 우려

주 52시간 근무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지역 버스업계 노사가 달라지는 임금·근무체계를 두고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여수·순천·광양·목포 등 전남 4개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에 20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중지는 노사 입장차가 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전남 4개 지역 버스업계 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업이 근로시간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임금·근무체계 협상에 나섰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전남 지노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지역별 최종 조정회의를 차례로 열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4개 지역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 협상을 오후 4시부터 6시간가량 이어갔으나 조정이 끝내 결렬됐다.

전남 버스업계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을 두고 가장 큰 견해차를 보였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월평균 근무 일수가 이틀가량 줄어드는 만큼 법정 최저임금에 기초한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측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견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목포의 경우 버스노조측은 근무형태와 관련, 현재 격일제를 1일 2교대로 바꿔 '주 52시간 근무체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월급 감소분 보전을 포함한 임금인상안(43.44% 인상·22일 근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월급 감소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하며 2016년 17억, 2017년 16억 적자를 본 만큼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광양도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임금 36%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불편도 예고되고 있다. 목포지역의 경우 버스업계 노사가 합의,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40여명의 버스 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버스 21대를 감축,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순천도 탄력근무제를 적용할 경우에도 20~30명의 버스기사가 추가로 필요해 버스 10대를 감축해야 하는 처지다. 여수도 부족한 50명의 기사를 메꿀 수 없어 20대 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이 교섭 내용을 담당 지자체에 전달할 시간을 주고자 한다"며 "지부장 회의를 열어 자체 협의 재개 또는 파업 등 향후 계획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해야"

시도교육감 촉구 성명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당선인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학교혁신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나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의 장 교육감과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장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교조 선생님들은 그동안 학교 현장 변화에 앞장서 왔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혁신에 앞장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노조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정부 당국에 반발해왔다.

전교조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달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장관 단독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법률자문을 거치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겠다" 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커갔다. 그러나 청와대가 불과 하루 만인 20일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동신대 신임총장에 최일 전 목포대 총장

동신대학교 제8대 총장에 최일(62·사진) 전 목포대학교 총장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해인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최 전 목포대 총장을 동신대 제8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인학원 이사회는 "40년 가까이 울산대, 목포대에서 교수와 총장으로 재직한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지방대학이 처한 현실과 나아갈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객관적인 시각과 새로운 리더십으로 동신대의 장·단점을 분석해 대학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기는 오는 7월15일부터 시작되며 취임식은 같은 달 16일 동신대 중앙도서관 동강홀에서 열린다.

최 총장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건축학과에서 학사부터 박사 과정까지 마쳤다.

울산대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목포대 건축학과 교수, 목포대 산학협력단장·공과대학장을 거쳐 제7대 목포대 총장을 지냈다. 현재 대한건축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020년 중고교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로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전제로 만들었던 중·고교 역사과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의 의미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했다. 현재의 교과서에서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한 점을 감안했고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김형호 기자 kh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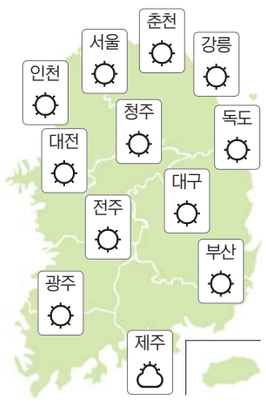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5:19	달뜸	14:14
해짐	19:50	달짐	01:33

"덥다 더워"

23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

광 주	맑음	18/31	보 성	맑음	16/28
목 포	맑음	19/30	순 천	맑음	19/29
여 수	맑음	20/28	영 광	맑음	17/30
나 주	맑음	16/30	진 도	맑음	17/29
완 도	맑음	18/29	전 주	맑음	18/31
구 례	맑음	15/30	군 산	맑음	18/29
강 진	맑음	17/30	남 원	맑음	16/30
해 남	맑음	17/30	흑산도	맑음	18/26
장 성	맑음	16/3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남서~서	0.5~1.0
	먼바다	북~북동	0.5~1.5	남서~서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동~동	0.5~1.0
	먼바다(동)	북~북동	0.5~1.5	북동~동	0.5~1.5
	먼바다(서)	북~북동	0.5~1.5	북동~동	0.5~1.5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매우 높음
미세먼지	보통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2:01	09:17
	14:47	22:02
여수	10:38	04:12
	23:12	17:22

◇ 주간 날씨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29(금)
20/31	21/33	21/32	20/29	23/28	23/29	23/29